

NC 내년부터 1군 무대 합류

KBO, 10구단 창단은 보류

프로야구 제9구단인 NC 다이노스가 내년부터 1군 무대에 합류한다. 이에 따라 내년 시즌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작년 8월 김경문 초대 감독 체제로 출범한 NC와 기존 8개 구단을 합쳐 총 9개 구단이 경합을 벌이게 된다. 지난 3월 창단 승인을 얻은 NC는 원래 2014년 1군 진입을 신청했다가 제반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들어 1군 진입 시기를 내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롯데 등 일부 구단이 강하게 반대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날 이사회에서 NC

의 1군 진입 시기를 내년으로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KBO 이사회는 NC의 구체적인 선수 수급 방안에 대해서는 실행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날 회의에 또 다른 안건으로 올라온 제10구단 창단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KBO 관계자는 "10구단 체제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좀 더 다각적으로 심층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와 전북도가 기업들과 손잡고 10구단 창단을 추진 중이다. 한편 KBO는 중·고교야구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수들을 위한 야구장 시설 개선, 관객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선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활발하게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 9구단 체제 프로야구... 피할 수 없는 문제들

팀간 19차전 133경기→16차전 128경기
쉬어가는 팀 생겨 전력 운영에 큰 변수로
이동거리 늘어 KIA 등 지방팀 체력부담

NC 다이노스의 1군 진입으로 프로야구 2013시즌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를 통해 NC의 내년 1군 진입안이 통과되면서 2013 시즌은 홀수 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현재 프로야구는 3연전 시스템으로 해서 팀간 19차전, 총 133경기를 치르고 있다. 내년 시즌부터는 팀간 16차전으로 해 128경기가 진행된다.

9월 중순 페넌트레이스 일정을 끝내기 위해 개막전 일정이 3월로 앞당겨질 예정이지만 팀당 경기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시범경기도 빨리 시작되어야 하는 만큼 각 팀의 스프링 캠프 일정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무엇보다 홀수 구단 체제에서는 쉬어가는 팀이 발생한다.

8개 팀이 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팀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상순세에서 흐름이 끊기거나 또는 턱난한 휴식을 취하고 상

대팀과의 대결을 벌일 수 있는 등 각 팀의 전력 운영에 변수가 되는 가장 큰 변화다. 특히 선발진 운영이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연전 기간도 생긴다. 일주일에 세 팀과 경기를 갖게 되는 만큼 선수단의 이동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KIA와 롯데 같은 지방팀들의 체력적인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구체적인 선수 수급방안에 대해서는 실행위원회에서 추후 논의가 이뤄진다.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 후 특별지명이 논의의 핵심이다.

NC는 2011 신인드래프트에서 신인 선수 2명 우선 지명 외에 드래프트 2라운드 종료 후 5명 특별 지명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 시즌에도 5명의 특별지명이 이뤄질 경우 기존 구단이 선수수급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 다음 실행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4경기 연속 안타... 불빛에 도루까지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사진)가 4경기 연속 안타를 때렸다.

추신수는 7일(현지시간) 미국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스브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정규시즌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안타 1개를 때려내고 2득점을 올려 팀의 8-6 승리를 이끌었다.

3타수 1안타에 볼넷 1개와 도루 1개를 곁들인 추신수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고 시즌 타율을 0.220으로 끌어올렸다.



2회말 무사 2루에서 우중간 안타를 때린 추신수는 가볍게 2루를 훔친 뒤 후속 타자의 안타와 땅볼로 홈을 밟았다. 3회말에는 볼넷을 골라 출루한 추신수는 후속타자가 2루타를 터트리자 질풍같이 홈으로 달려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KIA 이준호 “내 꿈은 미래의 타격왕”



신고선수 출신 ‘제2의 김현수’ 야심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이준호가 신고 선수 신화에 도전한다.

SK와의 경기가 열린 지난 3일, 2-4로 뒤지던 9회말 KIA는 선두타자 최희섭의 내야안타로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나지완의 삼진에 이어 차일목의 외야 플라이가 나오면서 투아웃. 하지만 신종길의 대수비로 들어갔던 이준호가 SK 마무리 정우람을 상대로 안타를 때려내며 분위기를 뒤집었다. 윤완주의 볼넷에 이어 김선빈의 2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양팀은 연 장 승부에 돌입했고, 이준호의 안타는 팀의 6-6 무승부의 시발점이 됐다.

넥센전 호수비로 눈도장 ‘광’

“한 경기·한 타석이 절실해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겠다”

8번 타자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던 5일에는 환상적인 수비로 넥센을 울렸다. KIA 선발 윤석민이 박병호에게 2루타를 내주며 혼란리던 4회 2사2루, 오재일의 타구가 외야 깊숙한 곳으로 뺏어나갔다. 이준호는 전력질주 끝에 펜스 앞에서 공을 낚아채며 실점위기를 막았다. 팀은 이날 3-2로 승리를 거뒀다.

이중범의 은퇴와 밀었던 신종길의 부진이 겹친 외야에서 이준호는 조용한 활약으로 자신의 위치를 넓혀가고 있다. KIA 팬들에게도 아직은 낯선 이름이지만 미래의 타격왕을 꿈꾸는 이준호의 도전기가 펼쳐지고 있다.

군산상고와 고려대를 거친 이준호는

2010년 KIA 선수가 됐다. 하지만 신고선수 신화이라 입단식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이 해 신인드래프트에서 정식 지명을 받고 KIA에 입단한 내야수 홍재호는 대학에서 4년간 한술밥을 먹던 친구였다.

이준호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강해 지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적은 좋지 못했다. 지명회의가 있기 전 성적에 17타수 1안타였다. 지명 받을 생각도 못했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니 알았다. 나중에 동기를 모두 진로가 결정됐는데 나 혼자 남았었다. 힘든 시기였다”고 당시에 회상했다.

뒤늦게 신고선수로 프로에 도전하게 된 이준호는 1년의 기다림 끝에 정식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손목 부상때문에 스프링캠프가 아닌 재활군에서 지난 겨울을 보냈다. 지금의 한 경기 한 경기, 한 타석 한 타석이 이준호에게 절실하고 소중한 이유다.

이준호는 “투수가 누구든지 칠 수 있다는 자신감, 모든 것을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그라운드에 오르고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목표는 타격왕이다. 지금 당장 1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하지만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야구를 하고 있다”며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승리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IA 5월 대반전의 새 동력 이준호가 신고 선수에서 팀의 중심 타자로 거듭난 두산 김현수에 이은 또 다른 성공 신화를 그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넥센 김병현 국내 복귀 첫 1군 엔트리

‘핵 잡수한’ 김병현이 8일 국내 복귀 후 처음으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김병현은 지난 1월 넥센 유니폼을 입은 후 1군 시범경기와 퓨처스 리그 등에서 총 다섯 차례 등판, 19와3분의2이닝 동안 7피안타(1홀런) 21탈삼진 5실점(3자책점)을 기록했다.

KIA와의 원정경기가 열린 지난 4일 선

수단과 동행한 김병현은 김시진 감독이 보는 앞에서 불펜 피칭을 하며 1군행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한편 1999년 애리조나에 입단해 메이저 무대를 밟은 김병현은 두 차례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끼는 등 빅 리거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일본 라쿠텐을 거쳐 올 시즌 국내 무대로 돌아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국생활체육대축전 11일 개막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 2012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11일 대전에서 개막한다. 대회는 ‘건강100세 생활체육! 미래100년 대전중심!’을 기치로 11일 오후 7시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막이 오르

게 되며, 13일까지 대전과 충남·북 3개 시·군에서 계속된다. 대회에 참가하는 16개 시·도 생활체육 2만여명의 선수단은 46개 정식종목과 8개 장애우종목, 2개 시범종목 등 총 56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13일까지 대전·충남·북서 열려

광주 520명·전남 830명 참가

광주는 29개 종목에 520명의 선수단, 전남은 32개 정식종목과 5개 장애우 종목에 83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광주 참가자 최고령은 김복순(만85세·국학기공) 동호인, 최연소는 임현진(만12세·

풋살) 어린이이다. 전남 최고령 참가자는 서화순(만84세·게이트볼) 동호인, 최연소는 김동민(만16세·인라인스케이팅) 어린이이다.

개회식에서 광주는 다섯 번째, 전남은 열두 번째로 입장해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지역홍보대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